


# 명. 11


2009  
홍순아현대춤







2009. 6. 3(수) p.m. 8:00 | 리허설  
4(목), 5(금) p.m. 8:00 | 본공연  
소극장 6번출구  
(금련산 6번출구 디젤미술학원 지하)

 부산문화재단

본 공연은 부산문화재단의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의 일부지원으로 공연됩니다.



내 딛고 미는 걸음. 손길 아프고 저리다.

누군가 내미는 운에 눈 멀어

머리, 가슴을 휘감고 파헤쳐

날카롭고 가늘게 작은 멍을 찍는다.

연인이여, 어머니...

당신의 손을 버리는 순간 어디에...

다시금 느낌없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헤메이는 발자욱

친구...

알 수 없는 속삭임을 안다고 소리질러보지만

거짓스런 좁다란 길에 놓아버린 끈

힘 없다.

내 딛고 미는 걸음.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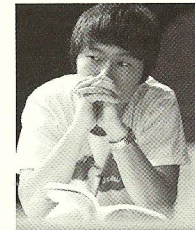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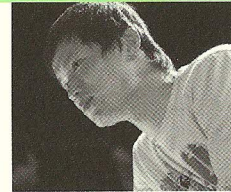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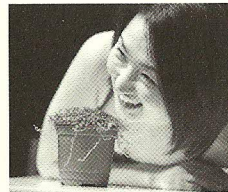
내 운을 동전 한 닢 맞겨 본다.

풀어라. 한 발. 한 손.

닿는 그 순간...

# Cast

김수현 허종원 김현진 정원혁 홍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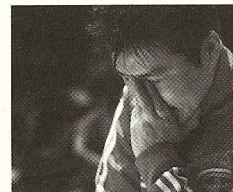


# Staff



연출 이준하 Sound Design vocal, percussion 문수경 / saxophone 마상령

조명 신봉석 무대감독 강숙하 의상 허종오 무대미술 황지선 사진 박성제





## Hong Soon A

바람이 운다. 내 영혼의 스산함이 바람이 되어 운다.

그 바람의 끝자락에 잊혀진 기억의 내음이 묻어난다.  
망각의 편린들이 내 영혼에 희미하게 손짓한다.

영혼이 운다. 소리없는 흐느낌으로 아픔을 달랜다.

어둠이 두려우면 눈을 감으라 한다.  
이제는 스러지는 아픔에 익숙하라 가늘게 속삭인다.

사람이 운다. 사람이 가여워 사람이 운다.

사랑하지 말라한다. 마음에 담지 말라한다.  
가여워 울지 않으려면 뒤돌아보지 말라한다.

내가 운다. 바람이, 영혼이, 사람이 나를 올라한다.  
내가 바람이고 내가 영혼이고 내가 사람이라 내가 운다.

모두 비워야 하는데 텅 비어야 하는데 .....  
몸똥아리도, 영혼도 모두 잊어야 하는데.....

모두가... 모든 것이..... 떠나질 않는다.

수현아, 종원아, 현진아, 원혁아, 꿈이지 않는 시간들에  
앞으로를 말하며, 풀이 속 자리를 함께 함에 고맙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 졸  
현, 부산경상대학 강사·부산대학교 강사  
부산교육대학교 강사·극단 '맥' 상임안무  
현대무용단 "자유" 정단원

**작품** 입김, 화혼, 물레, 등지, 빵 먹는 아이들,  
꿈이지 않는 소리, 꿈 만들기, 자리, CHOCOLATE I,  
CHOCOLATE II, PANIC, 바닥놀이, 해일 I, 길, 해일 II  
전율, 꽃보다..., 풀이 I

**연극** 흥가에 별들아라, 개똥이 놀이, 푸른 깃발, 도술가,  
세기초기 괴기전기, 취선록, 광대연가, 광대유사,  
환생신화, 내 마음의 풍경

